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비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은 정

2013년 8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비교




지도교수 김성봉

강은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강은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정환 
위 원 최보영 
위 원 고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국문초록>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비교

강 은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¹⁾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원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연구도구 선정, 예비조사, 조사 실시,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도내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68명과 제주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중2~고2 일반청소년 196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로는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박민호(2009)가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문항 및 어휘를 재구성 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Endler와 Rarker가 개발한 도구를 박용

1) 본 논문은 201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천, 김광일, Noh(2000)가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 대처검사를 위해 번안하였고, 다시 박민호(2009)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에서의 자료처리 분석은 Windows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과 단순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외모 관련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었다($p < .01$, $p < .01$, $p < .05$).

둘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과업중심,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며,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더 사용하였다($p < .01$, $p < .01$, $p < .05$).

셋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요인 별로는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고($\beta = .238$, $p < .01$, $\beta = .074$, $p < .01$),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다($\beta = -.167$, $p < .05$).

비행청소년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는 과업중심, 정서중심, 대처중심 대처방법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beta = -.409$, $p < .01$ / $\beta = .407$, $p < .01$ / $\beta = .379$, $p < .01$). 하위요인 별로는 경제적 관련 스트레스는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eta = -.378$, $p < .05$).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외모 관련 스트레스는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다($\beta = .507$, $p < .01$ / $\beta = .392$, $p < .01$).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비록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넓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5
1. 청소년기와 청소년 비행	5
2.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12
3. 청소년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19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연구절차	24
3. 연구도구	24
4. 자료처리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비교	27
2.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의 상관관계	29
3. 스트레스 원인이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33
V. 논의 및 결론	38
참고문헌	41
Abstract	44
부 록	47

표 목 차

표 1.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10
표 2.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10
표 3. 학생범죄자 공범관계	11
표 4.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11
표 5.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23
표 6. 스트레스 측정도구 문항구성	25
표 7. 스트레스 대처방법 측정도구 문항구성	25
표 8.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 차이 검증표	27
표 9.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대처방법 차이	28
표 10.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의 상관관계	29
표 1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간의 상관관계 비 교	31
표 12.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33
표 13.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33
표 14.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34
표 15.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35
표 16.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36
표 17.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36

그 립 목 차

그림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비교	28
그림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비교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변화해 가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일상 순간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며, 정신적 혼란과 가치관 갈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민귀식(2001)은 스트레스가 지니는 긍정적인 자극의 측면도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 심리적 우울과 좌절,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 부적응 및 문제 행동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과도기로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어른들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존재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박경희, 2003).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사회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청소년들에게 학업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긴장감, 인격적 미성숙, 욕구 좌절, 심리적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일탈의 수단으로 가출, 도벽, 약물중독, 성범죄 등 부적응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박민호(2009)는 복합적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악화시켜 건전한 성장 발달을 가로막고 있고 또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비행에 가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하는 극단적인 경우로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경희(2003)는 오늘날 청소년 비행의 특징은 난폭 및 강력화, 저 연령화, 도시 집중화, 비행의 누범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청소년 비행은 모두 스트레스에 적응을 잘못된 결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트레스를 받은 모든 청소년들이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마다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 대처 방법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를 지각하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그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으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의 비행을 살펴보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다. 2012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른 최근 청소년 비행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 비율이 2007년에 4.4%를 기록한 후 2008년에는 5.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1년에는 4.4%를 나타냈다. 소년범 구성 비율이 2009년부터 감소한 이유는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지 청소년 비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직 청소년은 자아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허진희, 2007). 이는 2012년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들 중 25%가 '우발적' 이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비행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도록 안내해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이며,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분석하여 차이가 있다면 현장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 비행 및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 대처방법,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의 상관관계를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과 비행 예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원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원인(부모, 성적 및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부모 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외모 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5.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과업중심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와 청소년 비행,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간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기와 청소년 비행

1) 청소년기의 개념 및 특성

청소년기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 문화 및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사춘기적 의미가 내포된 ‘청년기(adolescence)’는 19세기 이후 근대 사회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청년기(adolescence)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하였으며, "성장하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to grow into maturity)"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변화의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가 발달 단계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라는 데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허혜경, 200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정의 내리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제2조 1항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3조 1항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과 같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형법 제4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소년범으로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며,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6조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연소자로 본다.

이렇듯 법률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 법률적 위치와 지위는 불분명해진다. 결국 청소년이라 함은 성인 이전의 단계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

는데 미숙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성숙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아동의 특성과 성인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양자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존재이다.

청소년기의 특성을 선행연구(허혜경, 2003;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를 기초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신체적 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여자 10세, 남자 13세를 전후해 신체적 발달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이 시기에는 호르몬의 활발한 분비로 인하여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외관상 생리적 남녀 특징인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성적 성숙과 성장 급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본인 체형에 대한 불안, 성적 관심에 관한 부끄러움, 호기심, 월경에 대한 불쾌감, 성적 성숙의 빠른 속도, 제반 신체적 발달에 따른 정신적 변화 등으로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둘째, 지적 ·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지능은 12~14세까지 급상승하여 17~18세경에 정점에 달한다. 청소년기는 지능의 우열에 의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능발달이 지체된 청소년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가설적 사고가 가능하며, 자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다. 이성과 합리성이 점점 증가하며, 추상적인 사고력이 발달되어 이념·정치·철학·이상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자기의 관념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타인의 관념세계와 비교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사고와 행동을 하며, 자기 자신을 매우 독특한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독립성이 강해져 자신의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본인 스스로 내리고 싶어 한다.

셋째, 정서적 불안정 및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는 질풍과 노도의 시기라고 묘사될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큰 특징으로 본다. 이 시기는 감수성이 특히 예민하고 기복이 커서 쉽게 화를 내거나 불쾌해 하기도 하며, 성인 같이 행동하기도 하다가 아동과 같은 면모를 보이는 등 비일관적인 양상을 띤다.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불안은 신체적 에너지와 심리적 긴장감을 수반하여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로 인해 간혹 심리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행동 상에 있어

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서적 불안정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적응은 일반적으로 발달 과도기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소년들은 서서히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는다.

넷째, 가정환경 또는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그들이 사춘기를 맞이할 즈음 그들의 부모 또한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 자신이 이 시기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부모 역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체감 혼미에 따른 갖가지 문제행동은 그들 부모의 정체감 위기가 가세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체감 위기를 건전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믿지만, 최근 들어 상황변화와 사회 가치관의 혼동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부모들의 정체감 위기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삶의 무력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만족을 위해 모든 심적·경제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자기과시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허황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섯째, 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한다. 그들은 아동기의 무조건적 교우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배타적 성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교우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폭과 깊이가 점차 증대되고, 기성세대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이나 반항에서 합리적 비판과 논리적 대항의 자세가 형성된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인 존재로 신체적, 지적·인지적 발달이 급등함에 따라 정서적 불안정을 느끼고 있으며 성인과는 다른 사회 부적응 행동을 쉽게 보일 수 있는 존재이다.

2) 비행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여러 행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소년에 의한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포괄하는 법적인 개념이다(강영자, 1995; 이미숙, 2001;).

청소년 비행은 법적으로 개념화하는데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 제4조에 따른 비행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로 보면 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다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둘째,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한다. 즉,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행한 행위는 그것이 일반적인 범죄 행위라 할지라도 형사책임 연령이 14세 미만이므로 범죄가 아니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며, 형사제재는 물론 처분도 가할 수 없음을 말한다. 셋째, 우범소년은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소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는 소년,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는 소년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청소년 비행이란 법률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도덕적, 관습적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의 행위를 의미하고, 비행청소년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손상을 입혀 사회적 통념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법행위를 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청소년이 연구 대상자이므로 비행청소년을 소년법 제4조에 있는 범죄소년, 촉법소년으로 정의한다.

비행청소년의 특성은 선행연구(이애령, 1998; 김형선, 2001; 김종환, 2002; 서미경, 2003; 이화련, 2007; 김용례, 2010;)를 기초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즉 자존감이 낮으며 위축되어 있다. 자기에 대한 만족과 수용 정도가 낮아 자신이 못났고 열등하며 쓸모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며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감이 부족하다.

둘째,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분히 경험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정 및 욕구의 표현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의 감정

및 욕구를 공감 받지 못하다니 보니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충동적이고 왜곡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즉, 비행청소년들은 자극을 추구하며 충동적이며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 타인의 권리와 감정의 침해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죄의식을 경험하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

셋째, 관계형성능력이 제한적이다. 권위적인 인물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 내에서나 학교에서 권위적인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어른들과의 불화, 학교부적응, 가출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넷째, 삶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조망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

다섯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비행청소년 집단은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가정, 이성관계, 대인관계, 신체적인 건강과 외모, 가치관 등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문제 해결적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서적, 회피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상에서 본 것 같이 비행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 미숙한 감정 및 욕구 조절 능력, 도덕적 가치관 결여, 미흡한 관계 형성 능력, 뚜렷하지 못한 목표의식, 부족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의 특징이 있다. 비행을 저지른 모든 청소년이 이런 특징을 갖는 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행동 특성은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12 청소년백서에 기초한 청소년 비행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이다. 2011년 전체 소년범의 연령을 보면 16세 소년범이 26.3%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7세 24.0%, 18세 22.5%, 15세 20.6%, 14세 6.2%, 14세 미만 0.4%의 순이었다. 14세미만 소년범의 비율은 줄었으나, 16~18세 소년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1.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7	88,104 (100)	578 (0.7)	10,884 (12.4)	18,081 (20.5)	17,306 (19.6)	14,539 (16.5)	13,603 (15.4)	13,113 (14.9)
2008	134,992 (1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2009	113,022 (1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둘째, 청소년범죄의 재범화이다.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2011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0.5%로 전년도에 비하여 2.2% 상승하였다.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7년 6.9%에서 2011년 12.0%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죄가 점차 상습화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2007	81,090 (100)	55,543 (68.5)	11,540 (14.2)	5,332 (6.6)	3,090 (3.8)	1,969 (2.4)	1,225 (1.5)	764 (0.9)	543 (0.7)	324 (0.4)	760 (0.9)
2008	114,699 (1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2,682 (2.3)	1,778 (1.6)	1,131 (1.0)	753 (0.7)	567 (0.5)	1,175 (1.0)
2009	102,573 (100)	65,990 (64.3)	15,103 (14.7)	7,637 (7.4)	4,799 (4.7)	2,884 (2.8)	1,905 (1.9)	1,288 (1.3)	883 (0.9)	579 (0.6)	1,505 (1.5)
2010	82,368 (100)	50,830 (61.7)	12,091 (14.7)	6,546 (8.0)	4,070 (4.9)	2,749 (3.3)	1,784 (2.2)	1,147 (1.4)	865 (1.1)	627 (0.8)	1,659 (2.0)
2011	75,658 (1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1)	2,623 (3.5)	1,773 (2.3)	1,212 (1.6)	861 (1.1)	632 (0.8)	1,965 (2.6)

주 : 1) 2008년 6월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2) 전체 합계에서 미상은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셋째, 청소년범죄의 집단화이다. 김문관(2011)은 청소년범죄의 집단화 경향은 청소년의 집단화 현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집단화는 가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자기와 비슷한 또래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이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을 통해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역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의 비율이 높다.

표 3. 학생범죄자 공범관계

(단위 : 명, (%))

연도	계	단독범	공범	미상
2007	88,916(100)	43,584(49)	37,667(42)	7,665(9)
2008	129,921(100)	61,484(47)	50,059(39)	18,378(14)
2009	127,738(100)	60,064(47)	53,219(42)	14,455(11)
2010	105,237(100)	49,950(47)	43,169(41)	12,118(12)
2011	100,153(100)	45,722(46)	41,250(41)	13,181(13)

자료 : 대검찰청(2008~2012). 범죄분석.

넷째, 청소년범죄의 생계형이다. 2011년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을 보면 재산범이 37,978명(4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범이 2007년도에 33,659명(38.2%)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재산범 중 절도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8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형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4.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연도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8	
강력범	소계	1,928	3,016	3,182	3,106	3,289
	흉악범	1,094	1,427	1,608	999	1,268
	성폭력	834	1,589	1,574	2,107	2,021
폭력범	소계	23,275	34,067	29,488	23,276	22,233
	공갈	562	1,046	1,495	1,422	1,509
	폭행·상해 등	22,713	33,021	27,993	21,854	20,724
재산	소계	33,659	39,688	45,774	40,478	37,978
	절도	28,839	33,073	38,494	33,534	31,380
	횡령 등	1,167	1,855	1,664	1,483	1,528

범	장 물	271	571	820	722	454
	사 기	3,382	4,189	4,796	4,739	4,616
	교 통 사 범	21,893	27,666	18,138	13,842	11,523
	저작권법 위반	2,338	20,272	7,720	275	318
	기 타	5,011	10,283	8,720	8,799	7,727

주 : 1) 흉악범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등 : 폭행·상해의죄 + 폭력행위등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3) 횡령 등 : 횡령 + 배임 + 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5) 2006년도 통계에는 특별법 위반 현황 중 저작권법 위반 관련통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2.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란 의미를 어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라틴어의 “stringo”에서 유래된 것으로 ‘무엇을 조인다’는 뜻을 갖고 있다. 즉 개인의 심신의 균형상태를 위협하는 외부자극 조건으로서 어떤 압박이나 강제적 중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이정남, 2003).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용할 경우, 모든 종류의 곤란을 전부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즉, 개인이 어렵다거나, 마음이 쓰인다거나, 갈등이나 불안을 느낀다거나 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다(강영자, 1995).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매우 널리 있는 것에 반해 학자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달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개념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이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based Model of Stress)는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되는데 유해한 자극과 신체 생리적 기능의 변화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관점으로 초기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들은 주로 이 입장을 취하여왔다. 이 입장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로 보는데, 즉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취급한다. 이때의 반응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과 같은 생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짜증이 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박경희, 2003). 이러한 이

론은 스트레스 적응과 생리화학, 해부학, 신경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무엇이 스트레스 자극 요인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하기 매우 애매모호하며, 스트레스의 복잡한 속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려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평을 받는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based Model of Stress)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스트레스 정의로 외부 환경 자극을 스트레스로 보는 개념이다.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보고 자극을 곧 스트레스로 본다. 개인이 겪는 일상생활의 사건들이 스트레스가 되는데, 여기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혼,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 천재지 등 생활 사건들이 포함이 된다. 따라서 당뇨병, 암, 심장병, 우울증, 신경증 등과 같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 장애반응과 스트레스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보다는 명확하게 느껴지지만 생활사건이 개인에게 주는 심리적 의미라든지,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문제와 역사,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 사회변화의 의미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비평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사람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계론적 입장이 대두하게 되었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Transactional-based Model of Stress)는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입장으로 개인이 자극에 반응하는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상호결정주의이다. 이 입장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의 틀을 제시해준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즉, 스트레스란 개인이 외적 또는 내적인 요구가 이 요구를 다룰 적응자원보다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강조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적인 요소를 중요시하여 각 개인의 스트레스를 개인-환경을 매개하는 중요한 과정인 인지적 평가와 대응책을 검토함으로써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인지적 평가란 개인과 환경의 구체적인 상호 역동 또는 일련의 상호 역동 과정이 어떻게 스트레스 경험이 되며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고, 대처란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요구와 동반되

는 스트레스 및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박경희, 2003).

이상으로 스트레스의 개념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관점이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인지-현상학적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법에 대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유발원인

청소년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체적 급성장을 통한 변화,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에서 오는 역할의 변화의 혼란, 정체감 혼란, 정서적 불안정 및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신과 행동장애, 각종 비행, 여러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청소년 스트레스 유발원인을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데, 강영자(1995)와 이미숙(2001)은 건강, 주거환경과 경제문제, 가족문제, 학교생활, 학교 외 친구와 이성친구로 보았고, 김준호, 이동원(1996)과 김형선(2001)은 부모, 공부 및 학교, 성적 및 시험,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 관련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공부 및 학교와 성적 및 시험 관련 스트레스를 나눈 이유로 김준호, 이동원(1996)은 둘을 약간 다른 맥락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공부를 아예 포기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 있거나 공부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나, 시험이나 성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나 공부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지만 성적이나 시험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민호(2009)는 공부 및 학교와 성적 및 시험 관련을 합쳐서, 성적 및 학교, 친구, 부모, 외모, 경제적 문제 관련으로 보았다. 또한 방미리(2010)는 성적, 친구, 심리-성격문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진로문제로 보았으며, 박경희(2003)와 신이미(2003)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기 자신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원인을 부모, 성적 및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 관련 5가지 스트레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

가정은 사람이 출생하면서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회화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서 애정, 존경,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가는 혈연적 집단이다. 그러나 현대 가정이 핵가족제도로 변모함에 따라 가족 간의 권력구조와 성 역할의 변화, 부권의 권위약화, 모의 취업증가, 소자녀화 추세, 별거 및 이혼부부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불안 수준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이미숙, 2001). 청소년에게 가정에서의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이후에도 중요하다. 즉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훈육 방식, 부부의 관계 등은 친구, 교사,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서의 성취,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김선희(2005)는 청소년기의 자녀가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부모감독이라 하고, 부모감독이 낮은 경우 비행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의 위치, 활동, 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비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형선(2001)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정남(2003)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하였다.

(2) 성적 및 학교생활

청소년들은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최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영(2009)의 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부분이 공부문제였으며, 신이미

(2003)의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은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이었다. 방미리(2010)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 모두가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고 있었다. 김형선(2001)과 이정남(2003)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시험 및 성적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하였다.

(3) 친구관계와 이성교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또래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데 청소년들은 친구나 또래들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가치들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얻는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 비행집단의 한 유형인 패거리집단은 살고 있던 동네와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집단이기 때문에 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며 따라서 집단성원들이 비행집단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청소년시기에는 친밀감의 욕구가 커지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이성 또래와의 관계, 즉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영자(1995)는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이탈욕구에 비례하여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동년배의 이성에게로 전이되는 시기로서 이를 실현치 못할 때 소외와 좌절감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미경(2002)은 친구와 비행이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친구의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소외감이 높을수록 비행평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형선(2001)은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정남(2003)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하였다.

(4) 외모

21세기는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하기에도 과언이 아니다. ‘얼짱’, ‘몸짱’의 문화에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연예인 성형열풍과 다이

어트열풍 등까지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어질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대다수 청소년에게 패배감을 주고,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몸에 불만을 갖고 억압할 뿐 아니라 무력감을 갖게 한다. 또한 외모관리에 무관심한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런 심리적 억압감과 비난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 대인기피 현상과 우울증을 발병시킨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윤진(2010)은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지만, 두 집단 모두 외모에 매우 관심이 많은 편이다가 47.6%로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형선(2001)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하였다. 허진희(2007)는 외모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 외모·경제적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두 스트레스를 묶은 이유는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예뻐지기 위한 제품이나 옷을 사거나 시술을 하게 되는 의미에서 외모·경제적 스트레스로 보았다. 연구 결과 외모·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5) 경제

가정의 생활수준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은 한정된 용돈으로 불만이 생기고, 더구나 상대적으로 친구들보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낄 때는 심각한 욕구불만과 수치심을 자극하게 될 수도 있다. 대체로 소득이 낮을 때 생활상에 불안정한 요소가 더 많이 존재하므로 가정의 생활수준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유희비 마련을 위하여 발생한다는 사회현상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강영자, 199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형선(2001)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하였고, 남한희(2011)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관련 스트레스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스트레스 대처방법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 개인의 정신적 평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는데 이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위가 곧 대처이다(이미숙, 2001).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으며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므로 개인마다 사용하는 대처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학습된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과 적절한 해소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급속히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상황을 맞을 때 이를 피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대처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연구들에는 학자들마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분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졌고 널리 적용된 대처방식의 개념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교류이론에 바탕을 둔 대처방식이다. 그들은 대처방식을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정서중심 대처방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는 전략을 말하고 정서중심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의 발생이나 예견에 동반되는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박용천, 김광일, Noh, 2000). 따라서 문제중심 대처방식에는 문제해결이나 개인과 환경간의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책략이 포함되고, 정서 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방어기제의 사용으로 사건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처반응이 포함된다.

그 후 이러한 구분에 Endler와 Parker(1990)는 대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하위척도에 대한 경험적 지지의 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가진 척도를 사용해 왔다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대처방법에 회피중심을 추가하여, 대처방법을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으로 구분하였다. 과업중심과 정서중심은 Lazarus와 Folkman이 구분한 문제중심과 정서중심과 관련이 있으며 회피중심은 사회적 상호관계에 전념하거나 다른 데로 마음을 돌려 개인의 관심을 직면한 문

제로부터 전환시키는 대처방식으로 과업중심과 정서중심에도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박용천, 김광일, Noh, 2000), 과업중심적 대처는 문제해결,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또는 문제에 대한 최소 효과를 위한 시도로, 상황으로부터 배우고 관리하고 조정하려는 시도에 있어서의 문제를 직접 제시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문제나 정서 지향 반응에 대한 반추와 공상으로 문제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며 즉 감정의 반응, 자기편견, 사건에 대한 공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회피중심적 대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전념하거나 다른 데에 마음을 돌림으로써 당장의 문제에서 개인의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연구자들마다 대처유형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있으며 그 내용에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오랜 상황과 시간에 걸쳐 인격에 의해 결정되고 그 개인에 의해 채택되는 정형화되고 조절된 반응으로 간주한 Endler와 Parker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인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청소년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이미(200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도시지역 학생이 농촌지역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업성적이 중 수준 이상인 학생이 하 수준인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방미리(2010)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모든 스트레스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초·중·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망적 사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중심적 대처는 여자 고등학생을 제외하

고 남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남자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여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남자 중학생을 제외하고 여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경희(2003)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은 학교생활, 자기 자신, 대인관계, 가정생활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업, 적응, 진로의 문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여학생은 진로문제에서 남학생보다 더 높게 받고 있었다. 자아정체감, 생활, 신체생리의 영역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반면, 가치관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더 많이 받았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동성친구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이성 친구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족관계 영역은 남학생이, 경제생활에서는 여학생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가정생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활발한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영자(1995)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연구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자신들의 용돈, 교사와의 관계, 정신적 건강 순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스트레스, 용돈,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 형제 관계, 교우관계, 학교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친척관계, 학교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친구와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방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반청소년이 논리적 분석과 긍정적 검토의 접근적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양자택일적 보상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미숙(2001)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비교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상태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분노를 더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하여 고집, 긍정적 비교, 정서적 진정, 동화, 적극적 망각, 긍정적 해석, 정서적 지원 등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처방식을 활용하지 못함을 암시하며, 비행청소년들은 분노가 모든 하위대처방식과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청소년들은 주로 불안이나 우울이 대처방식과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민호(2009)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법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청소년들은 성적 및 학교 관련, 부모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비행청소년들은 친구 관련, 경제적 문제 관련, 성적 관련 스트레스가 높았다.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이나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선호하였다.

김형선(2001)은 일반청소년은 시험 및 성적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며, 비행청소년은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대처유형에 있어서는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과업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며,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정서중심 대처유형과 회피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비행청소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보다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 연구절차, 연구도구, 자료처리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 보겠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과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중2 ~ 고2 일반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청소년은 제주시내 ㄷ중학교, ㄱ중학교, ㄴ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행청소년은 도내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청소년과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일반청소년 196명, 비행청소년 68명의 자료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5에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은 남자 90명, 여자 106명으로 여자가 많은데 반해 비행청소년은 남자가 61명, 여자가 7명으로 남자가 많다. 이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남녀비율을 비슷하게 선정해서 조사했지만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남자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학년에서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133명이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6명, 고등학교 40명, 학업중단이 22명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학업중단, 중학교 순이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비행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에 있어서 일반청소년은 중이 월등히 높고, 그 다음은 상, 하의 순이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하가 높고, 그 다음은 중, 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

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성적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상태에서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고,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경제 상태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단위 : 명, (%))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성별	남자	90(59.6)	61(40.4)	151(100)
	여자	106(93.8)	7(6.2)	113(100)
현재학년	중학교	63(91.3)	6(8.7)	69(100)
	고등학교	133(76.9)	40(23.1)	173(100)
	학업중단	0	22(100)	22(100)
성적	상	48(94.1)	3(5.9)	51(100)
	중	118(84.9)	21(15.1)	139(100)
	하	30(40.5)	44(59.5)	74(100)
경제상태	100만원 미만	4(36.4)	7(63.6)	11(100)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3(43.4)	30(56.6)	53(100)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6(71.9)	18(28.1)	64(100)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9(83.1)	10(16.9)	59(100)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21(95.5)	1(4.5)	22(100)
	500만원이상	53(96.4)	2(3.6)	55(100)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2013년 2월 27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 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결과 청소년들이 응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소요시간과 문항이 적절하여 예비 조사 때 실시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3월 13일 ~ 2013년 4월 10일까지 약 한달 동안 학교, 보호관찰소, 소년원을 방문하여 각 선생님들의 협조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학교에서는 연구자가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당일 회수하는 방법과 선생님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 실시 요령을 설명하고 실시를 의뢰하여 회수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 실시 요령을 설명하고 실시를 의뢰하였다.

3. 연구도구

1) 청소년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청소년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도구를 박민호(2009)가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부모, 성적 및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 관련으로 5개 영역,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5점)로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점 척도로 되어있다. 즉 연구에서 활용된 질문지는 스트레스 요인과 정도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점수화 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906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스트레스 측정도구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모관련	7	1,2,3,4,5,6,7	.865
성적 및 학교관련	6	8,9,10,11,12,13	.785
친구관련	6	14,15,16,17,18,19	.906
외모관련	3	20,21,22	.595
경제적 문제	4	23,24,25,26	.801
전체	26		.906

2) 스트레스 대처방법 측정도구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관한 측정도구는 Endler와 Parker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박용천, 김광일, Noh(2000)가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 대처검사를 위해 번안한 질문지다. 이 도구는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 48 문항의 도구이다. 이 도구를 박민호(2009)가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3개 영역, 30문항으로 수정·보안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점척도로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84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스트레스 대처방법 측정도구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과업중심	10	1,2,3,4,5,6,7,8,9,10	.865
정서중심	10	11,12,13,14,15,16,17,18,19,20	.861
회피중심	10	21,22,23,24,25,26,27,28,29,30	.811
전체	30		.840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지 문항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초자료인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인식한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I 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을 비교하고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비교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 비교

표 8.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 차이 검증표

스트레스 원인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전체	2.30	.60	2.03	.73	2.674**	.009
부모	2.66	.91	2.20	.87	3.629***	.000
성적 및 학교	2.70	.75	2.27	1.02	3.205**	.002
친구	1.70	.79	1.50	.80	1.798	.073
외모	2.34	.96	1.99	1.04	2.464*	.014
경제적 문제	2.10	.89	2.21	1.19	-.688	.493

* $p < .05$, ** $p < .01$, *** $p < .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전체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M=2.30$)이 비행청소년($M=2.03$)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p < .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t=2.764$)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M=2.66$)이 비행청소년($M=2.20$)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t=3.629$)가 나타났다.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M=2.70$)이 비행청소년($M=2.27$)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p < .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t=3.205$)가 나타났다.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M=1.70$)이 비행청소년

(M=1.50)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모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M=2.34)이 비행청소년(M=1.99)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t=2.464$)가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는 비행청소년(M=2.21)이 일반청소년(M=2.1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으며,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친구 관련,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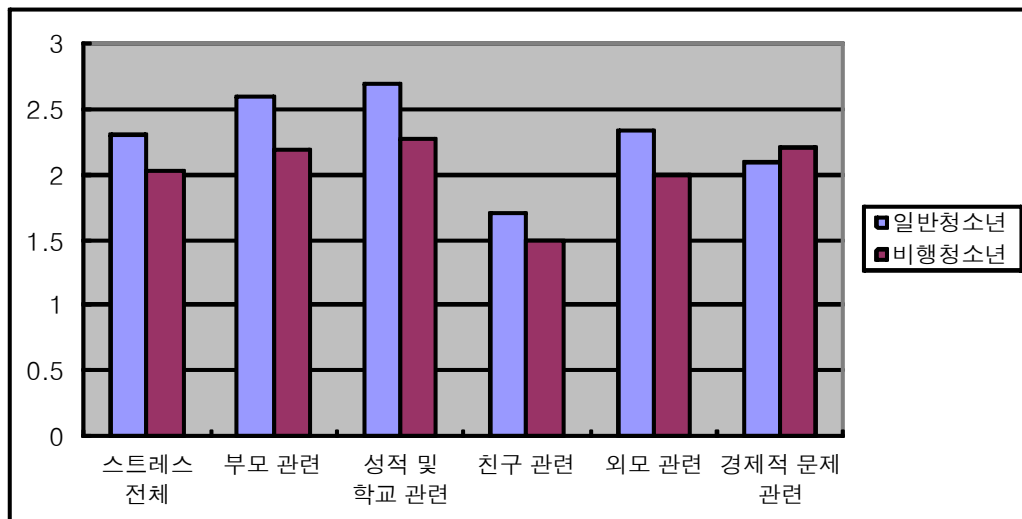


그림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비교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비교

표 9.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대처방법 차이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업중심	2.71	.65	2.46	.68	2.712**	.007
정서중심	2.53	.75	2.24	.75	2.788**	.006
회피중심	2.86	.74	3.07	.79	-2.104*	.036

* $p<.05$, ** $p<.01$, *** $p<.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업중심

대처방법은 일반청소년(M=2.71)이 비행청소년(M=2.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t=2.712$)가 나타났다. 정서중심 대처방법도 일반청소년(M=2.53)이 비행청소년(M=2.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1$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t=2.788$)가 나타났다. 회피중심 대처방법은 비행청소년(M=3.07)이 일반청소년(M=2.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t=-2.104$)가 나타났다. 즉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과업중심,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더 사용하며,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더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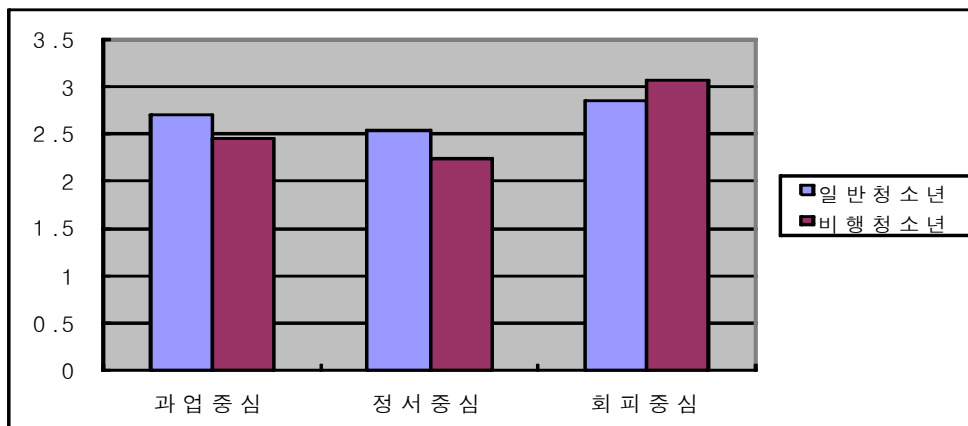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비교

2.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의 상관관계

1) 청소년의 스트레스원인과 대처방법간의 상관관계

표 10.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의 상관관계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부모	상관계수	.010	.387***	.135*
	유의확률	.874	.000	.028
성적 및 학교	상관계수	-.059	.444***	.177**
	유의확률	.341	.000	.004

친구	상관계수	.030	.286***	-.039
	유의확률	.633	.000	.531
외모	상관계수	.004	.238***	.164**
	유의확률	.949	.000	.008
경제적 문제	상관계수	-.112	.247*	.176**
	유의확률	.068	.000	.004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떤 경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하였다. 구체적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소년의 각 하위영역별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의 상관관계는 몇몇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대처방법의 정서중심($r=.387$, $p < .001$)과 회피중심($r=.135$, $p < .05$)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청소년일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과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정서중심($r=.444$, $p < .001$), 회피중심($r=.177$,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과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정서중심($r=.286$, $p < .0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은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외모 관련 스트레스는 정서중심($r=.238$, $p < .001$), 회피중심($r=.164$,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 또한 정서중심($r=.247$, $p < .001$), 회피중심($r=.176$,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회피중심 대처방법,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원인과 과업중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원인과 정서중심 대처방법, 회피중심 대처방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간의 상관관계

표 1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간의 상관관계 비교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일반	비행	일반	비행	일반	비행
부모	상관계수	.067	-.298*	.378***	.319**	.155*	.210
	유의확률	.352	.014	.000	.008	.030	.085
성적 및 학교	상관계수	-.020	-.264*	.388***	.513***	.164*	.316**
	유의확률	.784	.030	.000	.000	.022	.009
친구	상관계수	.095	-.216	.265***	.296*	-.071	.098
	유의확률	.184	.078	.000	.014	.325	.425
외모	상관계수	.070	-.254*	.211**	.237	.093	.425***
	유의확률	.333	.036	.003	.052	.196	.000
경제적 문제	상관계수	.060	-.449***	.303***	.174	.107	.305*
	유의확률	.402	.000	.000	.157	.135	.011

* $p < .05$, ** $p < .01$, *** $p < .001$

스트레스 원인과 스트레스 대처방법간의 상관성이 청소년의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으로 나누어 단순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대처방법과 상관성이 있으며, 하위변인별로 상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 중에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정서중심 ($r = .265, p < .001, r = .296, p < .05$)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서로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먼저 부모 관련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은 정서중심 ($r = .378, p < .001$), 회피중심 ($r = .155, p < .05$)과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비행청소년은 과업중심 ($r = -.298, p < .05$)과 부적상관, 정서중심 ($r = .319,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중심 대처방법,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비행청

소년의 경우 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업중심 대처방법보다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의 경우 정서중심($r=.388, p<.001$), 회피중심($r=.164, p<.05$)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r=-.264, p<.05$)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정서중심($r=.513, p<.001$), 회피중심($r=.316, p<.01$)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중심 대처방법,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성적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업중심 대처방법보다는 정서중심과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모 관련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은 정서중심($r=.211, p<.01$)과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비행청소년은 과업중심($r=-.254, p<.05$)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회피중심($r=.425, p<.001$)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은 일반청소년은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업중심 대처방법보다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은 정서중심($r=.303, p<.01$)과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비행청소년은 과업중심($r=-.449, p<.001$)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회피중심($r=.305, p<.05$)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업중심 대처방법보다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3. 스트레스 원인이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1)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표 12.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상수)	2.519	.182		13.852	.000	3.235	.225		14.393	.000
전체	.085	.076	.080	1.115	.266	-.379	.104	-.409	-3.641	.001
	R=.080, R ² =.006, 수정된 R제곱=-.001, F= 1.244, P=.266					R=.409, R ² =.167, 수정된 R제곱=.155, F= 13.259, P=.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비행청소년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 = -.409, p < .01$)을 보였다. 회귀식에 대한 R² = .167로 1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13.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상수)	2.600	.198		13.138	.000	3.186	.236		13.498	.000
부모	.039	.058	.055	.677	.499	-.085	.113	-.110	-.753	.454
성적 학교	-.077	.072	-.089	-1.071	.285	-.003	.099	-.004	-.029	.977
친구	.068	.065	.083	1.049	.296	.035	.120	.041	.291	.772
외모	.023	.059	.035	.395	.693	-.051	.085	-.079	-.606	.547
경제적 문제	.022	.066	.031	.339	.735	-.216	.082	-.378	-2.624	.011
	R=.133, R ² =.018, 수정된 R제곱=-.008, F= .684, P=.636					R=.463, R ² =.215, 수정된 R제곱=.151, F=3.391, P=.009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없었다. 반면에 비행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 = -.378, p < .05$)을 보였다. 회귀식에 대한 $R^2 = .215$ 으로 2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비행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과업중심 대처 정도는 떨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2)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표 14.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상수)	1.287	.192		6.699	.000	1.395	.248		5.620	.000
전체	.543	.081	.434	6.718	.000	.415	.115	.407	3.618	.001
	R=.434, $R^2=.189$, 수정된 R제곱=.185 F= 45.137 P=.000					R=.407, $R^2=.165$, 수정된 R제곱=.153 F= 13.088, P=.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beta = .434, p < .001$)을 보였다. 회귀식에 대한 $R^2 = .434$ 로 4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beta = .407, p < .01$)을 보였다. 회귀식에 대한 $R^2 = .407$ 로 4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15.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상수)	1.074	.204		5.255	.000	1.290	.247		5.218	.000
부모	.198	.060	.238	3.292	.001	.065	.119	.075	.545	.588
성적 학교	.244	.074	.074	3.285	.001	.373	.104	.507	3.599	.001
친구	.121	.067	.067	1.794	.074	.048	.126	.051	.380	.705
외모	-.037	.061	.061	-.616	.539	.078	.089	.108	.878	.383
경제적 문제	.074	.068	.068	1.089	.278	-.120	.086	-.190	-1.388	.170
	R=.483, R ² =.234, 수정된 R제곱=.213, F= 11.579, P=.000					R=.540, R ² =.292, 수정된 R제곱=.235, F=5.111, P=.001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모관련 스트레스,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beta = .238, p < .01, \beta = .074, p < .01$)을 보였다. 이는 회귀식에 대한 $R^2 = .234$ 로 2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beta = .507, p < .01$)을 보였다. 이는 회귀식에 대한 $R^2 = .292$ 로 2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모,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비행청소년의 경우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예측 할 수 있다.

(3)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표 16.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상수)	2.495	.209		11.953	.000	2.256	.265		8.507	.000
전체	.160	.088	.129	1.818	.071	.408	.123	.379	3.326	.001
	R=.129, R ² =.017, 수정된 R제곱=.012 F= 3.306, P=.071					R=.379, R ² =.144, 수정된 R제곱=.131 F= 11.059, P=.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비행청소년 경우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beta = .379$, $p < .01$)을 보였다. 회귀식에 대한 $R^2 = .144$ 로 1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17.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유의 확률
(상수)	2.366	.223		10.588	.000	2.208	.267		8.267	.000
부모	.094	.066	.114	1.426	.156	.039	.128	.043	.304	.762
성적 학교	.135	.081	.136	1.662	.098	.175	.112	.226	1.568	.122
친구	-.158	.074	-.167	-2.149	.033	-.242	.136	-.246	-1.781	.080
외모	.038	.066	.049	.570	.569	.298	.096	.392	3.106	.003
경제적 문제	.030	.075	.035	.400	.689	.074	.093	.111	.794	.430
	R=.245, R ² =.060, 수정된 R제곱=-.035, F= .2428, P=.037					R=.507, R ² =.257, 수정된 R제곱=.197, F=4.290, P=.002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eta = -.167$, $p < .05$)을 보였다. 이는 회귀식에 대한 $R^2 = .060$ 로 6%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외모 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beta = .392, p < .01$)을 보였다. 이는 회귀식에 대한 $R^2 = .257$ 로 2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청소년의 경우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회피중심 대처방법 정도가 떨어지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예측 할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앞 장의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인식하고 있다는 박민호(2009)의 보고와는 상반되지만 이정남(2003)의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받는다는 결과와 일치된다. 스트레스 원인 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 관련을 제외한,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친구 관련, 외모 관련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었다. 이는 남한희(2011)가 청소년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은 증가한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반청소년은 시험 및 성적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한다는 김형선(2001), 이정남(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일반청소년이 스트레스가 더 높은 이유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어떤 일탈행동으로 나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일반청소년의 경우 참고 어떻게든 견디어 보는 스트레스와의 싸움 단계이기에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안내,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높게 받고 있었는데, 이는 비행청소년의 비행 중에 '절도'가 차지하는 부분과 함께 볼 수 있다. 실제로 재산범죄 소년범죄 유형 별 중 45.7%로 가장 높게 차지한다.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비행에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건전한 청소년 알바 문화 등의 정착으로 청소년들의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로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대처방법 별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과업중심,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며,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더 사용하였다. 즉 일반청소년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업중심을 사용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신의 감정, 사건에 대해 생각 등을 하는 정서중심을 사용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외부에 관심을 두는 회피중심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과업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며,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정서중심, 회피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김형선(2001)의 연구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정남(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이미숙(2001)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처방식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는 비행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 결국 스트레스의 원인과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상을 옮겨 해소하다 보니 비행에 더 노출되기 쉬운 결과를 나타낸다. 김주현(2008)은 비행청소년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지역사회에서 각종 수련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래집단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본 연구자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 기관의 설립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취미생활 장려 프로그램 등이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요인 별로는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고,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는 과업중심, 정서중심, 대처중심 대처방법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하위요인 별로는 경제적 관련 스트레스는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외모 관련 스트레스는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김지현

(2001)은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비행청소년은 스트레스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려고 지레 포기하고는, 혼자 끙끙 앓는다거나 다른 제 3자에게 관심을 돌려 버리는 등의 정서중심, 회피중심의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선생님과 부모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 원인이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의 표집에서 제한적이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중2~고2로 한정했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학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중1 학생과 수능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고3을 제외한 표집이었으며, 학업을 중단하였지만 비행 사건을 일으키지 않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에 따른 분석이 미흡했다. 조사대상자의 부모학력, 부모유형, 출생순위, 종교, 성장지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지 못했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적 환경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설문지에 추가하여 정보를 얻고, 이러한 변인 별로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간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을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 수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 면담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영자(1996).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관(2011).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례(2010).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특성과 비행성향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05).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모감독 및 자아개념 상호작용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환(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2008). 비행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 김준호, 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현(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2009). 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선(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 비교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한희(2011). 스트레스 요인이 청소년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2012). 2012 범죄분석.
- 문윤진(2010).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연구 -경기지역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귀식(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와 공격성과의 관계. 경산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호(2009).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천, 김광일, Noh, S.(2000).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상황 대처검사의 타당도 평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신경정신의학**. p55-64.
- 방미리(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 성별 교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경(200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이미(2003).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이미경(2002). **학교환경요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2001).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비교**.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령(1998). **비행청소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남(200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수준 및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련(2007). **비행청소년의 구조적 결혼 가정 유무와 비행 행동에 따른 성격특성 연구 -청소년용 다면적 인성검사(MMPI-A)분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심리학**. 교육과학사.
- 허진희(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외모·경제 스트레스, 자아개념의 제 차원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혜경(2003). **청년발달심리학**. 학지사.

Endler, N. S., & Parker, J. D. A(1990). A Factor Analytic Study of Coping Style and the MMPI-2 content sc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4)*, pp523~527.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Stress and Coping Method
between Common and Delinquent Juveniles

KANG Eun-jung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IM Seo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²⁾ is to discover discrepancies of common juveniles and delinquent ones regarding the source of stresses and the coping methods. The study is developed based on the major research issues as the following to accomplish its goal.

1. What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source of stress between common-and-delinquent juveniles?
2. What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stress dealing method between common-and-delinquent juveniles?
3. What kinds of impact the source of stress has on stress coping method of common juveniles?
4. What kinds of impact the source of stress has on stress coping method of delinquent juveniles?

2) The concerned thesis is a master's thesis on pedagogy submitted to a board of educat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August, 2013.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s listed above, the study proceeds in the sequential order of the following: targeted study group justification, research tools selection, preliminary implementation, actual survey and statistical and data analysis.

68 juveniles who are under probation in Jeju are selected as delinquent juveniles while 196 of students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of the same region as common juveniles.

For the measuring instrument of stress, a research tool developed by Jun-ho Kim and Dong-won Lee in 1996 which is further altered by Min-ho Park in 2009 to make it fit for juniors with easier vocabularies and statements is used.

The measuring instrument of stress coping method, a testing tool firstly developed by Endler and Parker, further altered by Wong-chun Park, Gwang-il Kim, Noh in 2000 to fit it f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finally restructured by Min-ho Park in 2009 is applied.

For data analysis, Windows SPSS 18.0 program is applied to conduct t-test, simple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In regards to stresses related to parents, grade, schools and appearance, common juveniles tend to have higher level of stress than the delinquent.

Second, The research shows that common juveniles prefer task-oriented and sentimental methods to cope with the stresses while the delinquent tends to avoid the problem.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way of dealing with stress of the two groups, in case of common juveniles, the 'overall stress' has the most impact on sentimental methods followed by parents, grade and school related matter while friend-related matter results in evasion.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delinquent juveniles, the overall stress impacts on all of task-oriented, sentimental-oriented and

problem-solving-oriented. As a sub factors, stresses related to economic problems have an additional effect on task-oriented method. Furthermore, grade and school related stress affects sentimental-oriented method while appearance related matter affects evasion.

In summary, this study shows differences on the type of stresses common juveniles and delinquent juveniles get and also the way of dealing with them. Though it is impossible to remove stresses completely, if we understand the types of stresses the juveniles get and proper ways of dealing with it, we could teach and guide them to manage their lives well under stress. As su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the juveniles in order to enable them to manage their lives on their own by providing seminars, programs and counseling on proper ways of managing stresses.

부록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청소년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지에는 정답이 없으니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연구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은정(010-9621-3982, dms-wjd1004@hanmail.net)

※ 아래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현재 학년 ① 중학교 ____학년 ② 고등학교 ____학년
 ③ 학업중단 (____세)

3. 학교 성적 ① 상 ② 중 ③ 하

4. 가정 경제 상태 (월소득 합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1. 스트레스 원인

※ 다음 문항은 평소 청소년 여러분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번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부모님끼리 싸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부모님으로부터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7	부모로부터 형제간에 비교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학교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공부에 흥미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11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친구들에게 맞거나 물건을 빼앗겨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8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9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0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1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2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3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4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5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6	우리 집이 가난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 스트레스 대처 방법

※ 다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여러 가지 해소 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없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2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생각해본다.					
3	내가 과거에는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던가를 생각한다.					
4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보고 나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5	반응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분석한다.					
6	행동의 우선순위를 교정한다.					
7	과제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추가로 노력을 더한다.					
8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9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로 이용한다.					
10	다음에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세운다.					
11	일을 미룬 나 자신을 비난한다.					
12	고통과 통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13	이런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해 나 자신을 비난한다.					
14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15	상당히 긴장한다.					
16	지나치게 감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나무란다.					
17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 자신을 나무란다.					
18	매우 언짢아한다.					
19	화를 낸다.					
20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21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려 한다.					
22	시내, 상점이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구경한다.					
23	친구와 만나 재미있게 논다.					
24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식을 먹으러 간다.					
25	친구를 방문한다.					
26	특별한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27	산책을 한다.					
28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29	TV를 본다.					
30	PC 방이나 집에서 인터넷 또는 채팅을 한다.					

★ 감사합니다. ★